

남구,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수행기관 모집

집수리 3년 이상 경력 공공·비영리 기관 대상

20~22일까지 접수...주거환경 개선·편의 증진



광주 남구청 전경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0일 “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수행할 전문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장애인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이동 안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면서 집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사업 수행 실적을 보유한 공공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기업이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비영리 민간기업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

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남구청 6층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신청기관의 적합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장애인 가구 12세대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조와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개보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주택 환경 개선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사업”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사업 대상 가구는 소득 수준과 주거환경, 개보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가구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 개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수 기자

광산구, 하남다누리체육센터 만족도 92%

주민·북구청·경찰·소방 등 50명 참여

수해 취약지역 대응체계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 하남다누리체육센터가 구 직접운영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15만 명을 돌파하고 이용자 만족도 92%를 기록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7월 정식 개관한 하남다누리체육센터는 연면적 6,047㎡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생활체육시설이다.

광산구는 직접 운영 이후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개관 이후 1년간 누적 이용객은

15만 명을 넘어섰다. 월평균 1만 2,000명, 하루 평균 600여 명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수영·아쿠아로빅·배드민턴·발레 등 12개 종목 37개 강좌에는 매월 700여 명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센터가 짧은 기간 안에 주민들의 생활체육 거점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광산구체육회와 협업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합리적인 이용요금 큰 역할을 했다.

광산구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92%(매우 만족 72%, 만족 20%)로 나타났다.

특히, 수영 강습을 비롯해 어르신 아쿠아로빅, 어린이 수영·농구,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등 연령과 생활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계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광산구는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설 환경 개선과 운영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시설을 신속하게 보수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의 내실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령별·수준별 맞춤형 강좌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운영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문 강사진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용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의견 수렴도 이어갈 계획이다. 접수 시스템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하남다누리체육센터를 지역 대표 생활체육 거점시설로 육성해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정관 기자



하남다누리체육센터 전경 사진

/광주 광산구청 제공

